

Daily Auto Check 2022. 2. 9 (Wed)

meritz 메리츠증권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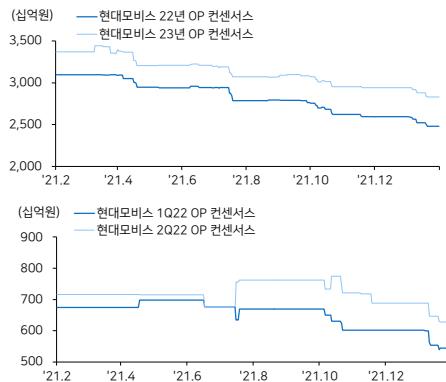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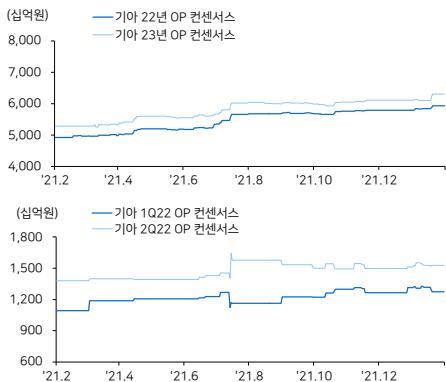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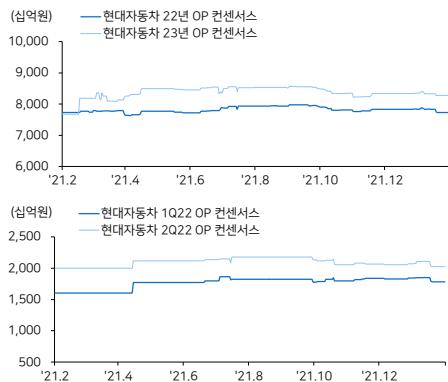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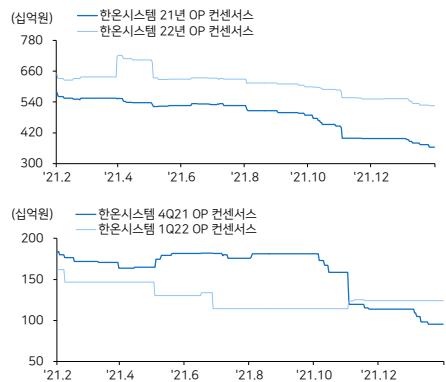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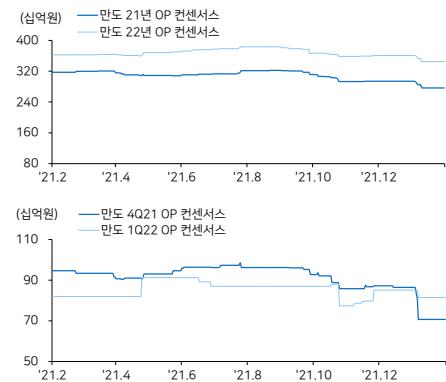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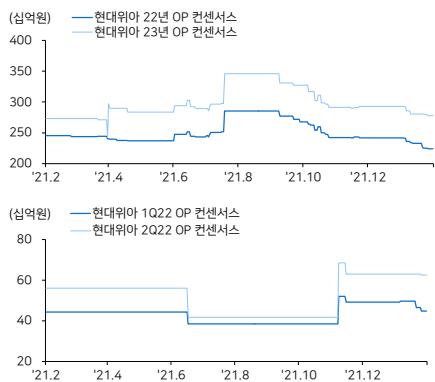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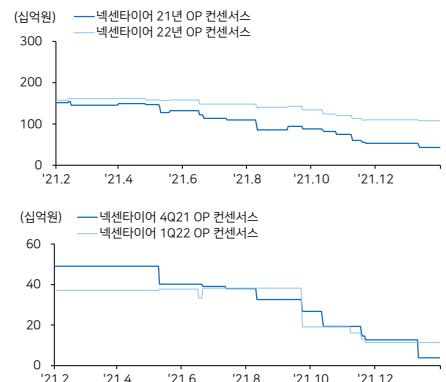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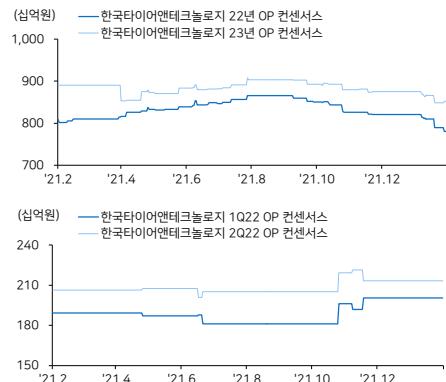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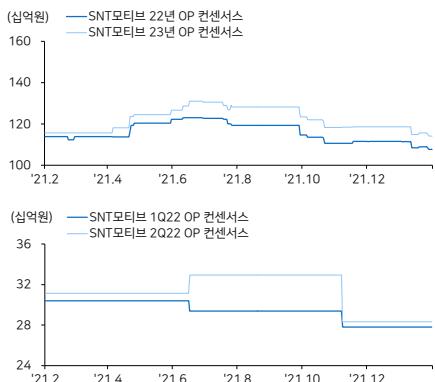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기아차, 미국서 48만대 리콜 "ABS 누전 가능성" (조선비즈)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약 48.5만대가 리콜된다고 AP통신이 8일 보도함. AP통신은 이번 리콜이 지난 6년간 현대/기아차를 괴롭혀온 화재/엔진고장 문제의 또다른 사례로, 차량 금제동시 안전장치(ABS모듈)의 오염으로 누전될 개연성이 있다고 밝힘.
<https://bit.ly/35Z5pTM>

현대자동차·기아, 올해 자율주행 로보택시 도심 달린다..."미래로봇 상용화 원년" (한국경제)

현대차는 상방기 운전자 위치를 최소화한 레벨4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로보라이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 하반기는 제네시스 G90 차량에 레벨3 자율주행 기능을 더해 출시할 예정. 또한 물류로봇 '스팟'의 본격 상용화와 '스트레치' 출시 계획.
<https://bit.ly/3uyO3qS>

GM plans six-fold increase in 2022 electric truck, SUV production (Reuters)

GM은 올해 전기트럭과 캐딜락 SUV의 생산량을 계획 대비 6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일レ짐. 공급업체와는 총 46,000대까지 늘릴 계획을 공유함. 메리 바라 CEO는 지난주 '22~23년도 북미 40만대의 EV 생산을 계획이라고 언급함.
<https://reut.rs/3GFhdXK>

Volvo Cars to invest over \$1 billion to upgrade Swedish plant with tech-like mega casting (electrek)

볼보는 EV 생산을 위해 스웨덴 Torslanda 공장에 약 11억 달러 투자 계획을 공유. 알루미늄 부체 부품의 메가캐스팅, 새로운 배터리 조립공장 등이 포함됨. 지난주 볼보는 '노스볼트'와 배터리셀 공장을 동일 지역에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
<https://bit.ly/3oyFDwA>

인도 외교부, '현대차 카슈미르 이슈'로 주인도대사 불러 항의(연합뉴스)

인도 외교부는 주인도대사를 불러 최근 현대차 파키스탄 대리점이 올린 카슈미르 이슈 관련 글에 대해 항의함. 현대차는 이번 논란을 유발한 게시물을 자사와 관련이 없는 파키스탄의 독립 대리점이 올린 글이라는 점을 강조함.
<https://bit.ly/34CQgXv>

제네시스 세 번째 전기차 GV70, 3월부터 본격 양산 (조선비즈)

현대차는 제네시스 GV70 전기 모델의 양산 준비에 들어감. 이달 말까지 전시/시승용 80여대를 우선 생산 및 공개 후, 3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전망. GV70 전기차는 내연기관 GV70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모델.
<https://bit.ly/3Ba21AJ>

Semiconductor chip supply to normalize in 2022, says Mexico's auto industry (Reuters)

AMIA(Mexican Auto Industry Association)는 '22년 하반기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혈상의 정상회복을 예상함. 이는 기존에 '23년 말~'24년 정상화를 예측했던 입장에서 상당히 개선된 전망. 멕시코 1월 자동차 생산은 7개월 연속 감소세 중.
<https://reut.rs/35SC1hp>

Xpeng users drove over 4.4 million km with XPILOT during Chinese New Year holiday (CNEV Post)

Xpeng은 중국 설연휴 자체 ADAS인 XPILOT의 마일리지를 공개함.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의 기간 동안 Xpeng의 유저들은 총 5,447만 km를 운전함. 유저들은 충주행거리의 약 8%를 Xpiot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https://bit.ly/3LnDxJk>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